

Since Oct. 10, 2004
해외 한인 장로회

Church of the Lord



하나님의 사랑교회
Dec. 08, 2024 (통권 1032호)

오늘의 말씀

“공동체의 중요성과 교회”

[행 2:42~47]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46)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담임목사 정석진

David Seokjin Chung / Senior Pastor
Cell 551.999.5358
pastor.ds.chung@gmail.com

5 Old Dock Rd.
Alpine, NJ 07620
Tel. 845.398.0691, 201.767.1004
Fax. 845.398.1365
www.churchofthelord.org

우리는 현대 사회의 문제들과 그에 따른 성경적 해답을 얻는 8 주간의 시리즈를 함께해왔습니다. 1)자연재해와 하나님의 주권, 2)신종 질병의 확산과 신앙, 3)전쟁과 갈등 속의 평강, 4)인공지능의 발전과 신앙의 균형, 5)세대간 갈등과 은혜의 흐름, 6)사회적 소외와 하나님의 사랑, 7)스트레스와 하나님의 위로, 이런 말씀들을 그동안 우리는 나눠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드디어 이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함께 싸워나가기 위해 “공동체의 중요성과 그 중요한 공동체 역할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회의 존재”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봅시다.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지금까지 이야기해왔습니다. 그 다양한 문제들은 그것을 통과해 가는 현대인들에게 혼자서는 도저히 견뎌내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따라서 그런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 현대인들에게는 무엇보다 공동체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현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병이 “사회적 고립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공감합니다. 과거에는 가족 간의 대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마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시간은 상머리에 앉으신 아버지의 권위와 온 식구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어머니들의 부단한 섬김,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열심히 자라가고 있는 자녀들의 따사로운 가족애가 넘치는 대화의 시간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종일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지 함께 나누며 사랑의 공동체의 체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나긴 겨울 밤 농한기의 동네 사람들이 연령별로 이집 저 집 사랑방에 모여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공동체들의 존재가 사람들의 마음을 따사롭게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커뮤니티 안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더욱 재미롭고 넓은

세상이 사람들의 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보다 Virtual 세계(가상현실의 세계) 속에서 넓은 세상을 헤엄쳐 다니는 일이 더 즐거워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를 가도 예전 같은 대화의 장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대화가 점점 사라집니다. 식구들 안에서도 한 구성원이 어떤 상처와 아픔에 빠져가고 있는지를 살필 기회가 점점 없어집니다. 온 가족이 어쩌다 시간을 내어 레스토랑에 외식을 하러 간다 해도 온 식구들이 저마다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자기들의 세계에 따로 따로 빠져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에서 어른들이 자녀들과 나눌 수 있는 대화가 극히 적어집니다. 그래도 어른들의 입장에서 체크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 어쩌다 한 번 이루어지는 대화는 그저 듣기 싫은 잔소리가 전부인 경우가 많아집니다. “너 공부했어? 시험 잘 봤어? 나때는 말야~” 드리어 끈대라떼의 시간이 오고 대화는 더욱 단절되어만 갑니다. 그러면 양쪽이 모두 상처를 가슴에 쌓게 되지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 어느때보다 사회적 고립감이 무서운 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사로운 공동체의 지지 부족은 여지없이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동체와의 접촉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가장 무서운 문제는 사람들 상호간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도 앞에서는 미소 지으면서 “아~ 그렇군요” 맞장구를 치지만 내면에는 “뭐래? 웃기고 있어 정말. 저걸 누가 믿어?” 이런 마음들을 품습니다.

결국 개인주의는 점점 커지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러면 사회적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고 현대인들은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며 살게 됩니다.

이 군중 속의 고독은 정신적 황폐함을 가져오고, 마침내 스스로 세상을 저버리는 비극적인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존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에서 과연 교회의

역할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공동체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을 주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 속에 영원한 생명력은 없습니다. 한 때 대단한 결속력을 가진 공동체도 그 공동의 목적과 이념에 균열이 생기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 모든 것들보다 영원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단체입니다. 교회는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영원을 향해 함께 가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공동체를 지켜내고, 또한 그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에게 영원한 은혜를 제공하는 은혜와 실력을 갖춘 공동체로 성장하고 그 역할을 수행해 내는 것에 대해 교회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합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는 가장 아이디어얼한 교회공동체의 모델로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탄생된 초대교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묘사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우선 이 초대교회공동체가 탄생한 경위에 주목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실 사람에 중심을 두고 세워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탄생된 공동체입니다. 사람의 목적에 의해 탄생되는 공동체는 모든 것이 사람에 중심을 두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교회의 규칙을 정하고 공동체의 목적을 정하고 비전 선언문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진 교회를 세우기 위한 법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을 기초로 특정 지어진 교회를 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교회가 탄생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의 시작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읽어봅시다.

[행 1:4~5]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교회공동체의 탄생에 대한 예수님의 계획은 그 공동체에 인간의 계획과 이념들이 전혀 섞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능력을 입힘 받을 때까지는 아무런 Action도 취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 임의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것은 교회공동체의 탄생 자체가 사람의 이념과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설계하신 목적과 의도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해서 교회공동체가 사람을 돌보거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계획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좀 전에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2:42~47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는 그 시대의 사회가 가진 아픔을 치유해주는 교회였습니다. 우선 그들은 물질적인 필요를 가진 사람들에게 자비의 마음으로 공급했고, 모일 때마다 아가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구제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과부들을 돌보는 웰페어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은혜가 넘쳐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진 필요를 채워주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그 방향으로 교회를 끌어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람을 불어주시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뜻을 달고 향해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도들 중에 아무도 제 물건을 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아낌없이 교회에 드려서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다음 흠어진 무리들이 각 지역에 가서 세운 교회들, 그리고 바울사도의 전도여행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 그런 교회들도 모두 초대교회의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이 공감하는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거기에 의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리적 가르침을 나눈 후에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하신 사역들을 순종의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교회공동체의 아름다운 열매를 가장 잘 보여준 말씀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준 소위 [사랑 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일 것입니다. 교회공동체의 존재는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거의 암송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도 교만도 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고 이기적인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한 정의가 성령의 은사 부어 주심에 대한 말씀인 고린도전서 12장에 바로 이어서 나왔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어 각양 은사와 나타남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이런 성향들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열매입니다.

그런 면에서 야고보 역시도 교회와 성도의 참된 경건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약 1:25~27]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26)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7)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언제나 사도들의 교리적 가르침으로부터 모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현대사회의 문제와 성경적 해답 시리즈를 공부하는 동안 여러 차례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미 6:8]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공동체의 진정한 목적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선한 목적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당당하게 요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많은 성도들이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자신들의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드리는 것이 일종의 트렌드가 되었던 때가 있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도들 가운데는 재산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한 Need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권합니다.

[고후 8:7~9]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8)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게다가 바울사도는 교회공동체는 자신들이 입은 은혜를 꼭 갚으려 애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롬 15:27]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빛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방교회들은 모두 예루살렘의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은혜의 빛을 진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고 그 부흥의 열매로서 이방 땅에 복음적인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은혜를 입고 이방인 교회 성도가 구원을 받았고 교회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영적인 은혜의 샘물이 되어주었던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물질적인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회로부터 영적인 큰 은혜를 입었으니 지금 그들이 육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쓰는 일에 비겁한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를 지속하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해야만 할 일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성도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피하지 맙시다. 우리의 최선을 다해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를 권합니다.

[히 10:24~25]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